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누리과정 연계

- 일 시 2014년 5월 26일(월), 15:00-18:00
- 장 소 중앙대학교 대학원(302동) 대학원회의실(503호)
- 참여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주 최 교 육 부
- 주 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 누리과정 연계 -

시 간	일정 내용
14:30 ~ 15:00	등록
15:00 ~ 15:15	<p>개회</p> <p style="text-align: right;"> 사회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p> <p>국민의례</p> <p>환영사 이 영(육아정책연구소장)</p>
15:15 ~ 15:45	<p>주제발표 누리과정 연계: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 장혜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p>
15:45 ~ 16:35	<p>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 단은미 (인천 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p> <p>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I) 오민아 (제주 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교사)</p>
16:35 ~ 16:50	휴식
16:50 ~ 17:40	<p>지정토론</p> <p style="text-align: right;"> 사회 박찬욱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이종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흥옥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장) 박지현 (구립면일어린이집 교사) 마미정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p>
17:40 ~ 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8:00	폐회



Contents

●● 주제발표 (누리과정 연계: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 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

단은미 (인천 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37

●● 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I)

오민아 (제주 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교사) 51

●● 지정토론

이종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63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8

유흥옥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장) 71

박지현 (구립면일어린이집 교사) 77

마미정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81

|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

누리과정 연계 :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

●●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누리과정 연계 :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¹⁾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2011년 정부는 취학 직전의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11. 5. 2)한 이후, 이원화되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5세 누리과정’을 9월 5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5세 누리과정은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는 만 3-5세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보완하여 구성된 것으로,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별 누리과정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 시기부터 2009 개정 초등학교 1, 2학년군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5세 누리과정은 유아가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상급교육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은 취학 직전 커리큘럼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커리큘럼이 상이하였고 커리큘럼 운영의 질 또한 달랐다는 점에서 누리과정은 커리큘럼에 대한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아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의 적응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1) 본 원고는 ‘장명림·장혜진·이환기·이승미·송신영·최미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3·4세 연계 방안 연구’와 ‘장혜진·김은설·상경아·송신영(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의 일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의 원만한 적응은 누리과정 운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해서 질적 수준이 높은 커리큘럼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커리큘럼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나 커리큘럼 측면에서 연계성의 강화는 커리큘럼 개정, 개선 혹은 평가 시 질 높은 커리큘럼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된다(김진숙·박순경·최정순·이효녕·송지윤·박영미, 2013). 커리큘럼의 연계성이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종적, 횡적 수준의 연계가 이루어져 커리큘럼 조직의 기본 원칙인 계속성, 계열성이 확보되고 통합성, 접합성, 연결성의 개념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계가 잘 이루어진 커리큘럼 내에서는 영유아의 경험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기관 간 원활한 전이를 도와 줄 수 있다(김창복·김민진·김호·윤은주·이대균·정지현·한석실, 2011).

이와 같은 측면에서 누리과정은 0-2세와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전, 후 연령과의 연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은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유아의 학기 초 학교적응은 이후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기 초 학교적응은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앞으로의 학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이진숙, 2004;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이현숙, 2011; 조운동, 조성민, 최인선, 2013).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유아는 학교에 대한 감정 및 태도, 동기 등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여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영복, 1984; 김수정, 광금주, 2010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유아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수반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염미애, 문혁준, 2008;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2009). 다수의 연구결과, 학교적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적 성패까지 유의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초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박은주, 심우엽, 2005; 정대현, 지성애, 2006; 김민진, 2008; 박상희, 2009; 부경희, 2009; 정윤미, 장영애, 2009; 장성화, 윤향숙, 김순자, 박영진 2010).

요약하자면, 누리과정의 일차적인 목적이 연계나 학교적응은 아니지만 누리과정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운영 측면에서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은 순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1학년 학기 초 적응이 유아 개인이나 가정환경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누리과정의 질 제고나 유아의 출발점 평등 제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의 현황을 개인 및 가정환경, 누리과정 이용 기관 관련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정도를 조사하여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질 제고와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줄고는 두 가지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학기 초 학교적응 검사 결과는 표집된 1학년 유아의 각 담임교사가 2013년 5월 응답한 결과이며 모의 우울과 유아의 기질은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작성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은 2012년 10월 실시되었다.

1) 1학년 대상 학교적응 검사

본 연구는 전국의 2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유아 1,74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참여 현황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하여 교육부(2012)의 ‘5세 누리과정 유아 참여 현황조사’와 육아정책연구소(2012)의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에 나타난 유아 수를 참고로 하여 전국을 5개권역(서울권, 경기권, 대구·경상, 광주·전라권, 강원·충청권)으로 나누고 지역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유아 수를 비례 할당하였다. 초등학교 선정은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매우 높거나 낮은 지역을 배제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표 1〉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검사 참여 현황

단위: 학급, 명

권역	지역규모	학교명	학급수	유아수
서울	대도시	S1초	3	75
		C초	3	73
		S2초	4	86
		J초	2	43
		S3초	3	53
경기	중소도시	I초	4	115
		M초	3	89
		S4초	7	165
	읍면	Y초	2	43
		S5초	3	84
대구	대도시	W초	3	105
		N초	2	32
		Y초	4	99
경상	중소도시	D초	3	87
		B초	2	64
	읍면	P초	2	51
광주	대도시	H초	5	134
전라	중소도시	M초	2	61
		Y1초	1	21
	읍면	Y2초	1	24
강원	중소도시	M초	3	94
		N초	2	34
충청	중소도시	H초	3	85
		S6초	1	27
계		24개교	68개 학급	1,744

가) 연구도구

(1)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검사도구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1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관련 여러 연구(최옥희, 김용미, 2008; 김수정, 광금주, 2010; 최지영,

양현주, 2012)에서 사용된 바 있다. 1차 수정은 전문가 6인의 타당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존척도에 없는 자기절제, 안전, 자연보호, 활동 참여 관련 문항과 장명림, 장혜진, 송신영, 이환기, 이승미, 최미미(2012)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적응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측정도구의 표준화된 신뢰도 계수는 일상생활 .918, 학습수행 .962, 또래관계 .934, 교사관계 .885로 나타났으며 2차 수정을 거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일상생활 .951, 학습수행 .938, 또래관계 .919, 교사관계 .827로 나타나 연구결과 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울 검사도구

모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6’도구를 사용하였다. K6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가 개발한 간편형 도구이다. 이는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을 실시하여 주로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할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다방면에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K6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안 느낌’이 0점, ‘항상 느낌’이 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부터 24점이며 이중 정상 수준은 0~7점, 경도/중중도 우울은 8~12점, 중도 우울은 13~24점으로 분류된다(Kessler, Galea, Jones, & Parkerd, 2006). 본 연구에서 K6의 표준화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932였다.

(3)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 & Chess(1977)의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고 총 9개 범주 중 선행연구 분석을 근거로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 및 지속성의 3가지 범주를 사용하였다. PTQ는 부모가 만3세-7세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며 국내에서는 두 차례의 표준화 연구(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1999; 홍성도, 최성구, 김지혜, 김의정, 2003)가 실시된 바 있다.

9가지 범주 중 초등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범주는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 및 지속성으로 나타나 각 범주에 해당하는 8문항을 선택하였다. 원척도는 7점 척도였으나 부모의 응답이 용이하도록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2)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로 유치원 교사 450명, 어린이집 교사 450명, 초등학교 교사 5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교사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되었으며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성, 인성에 대한 문항 12문항, 학습수행 관련 능력 9문항으로 2012년 10월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3.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현황 분석

가.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현황

초등학교 1학년 유아의 학교적응 평균 점수는 3.86점이었으며, 그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교사관계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3.98점, 학습수행 3.84점, 또래관계 3.65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특히 학습수행과 또래관계가 학교적응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래관계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교사관계와 0.42점이라는 적지 않은 점수 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유아가 교사와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은 수월하게 하는 편이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유아의 학기 초 학교적응의 전반적 현황을 볼 때, 교사관계나 일상생활적응보다는 학습수행이나 또래관계적응에 대한 관심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관계는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 및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아의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혹은 활동 안에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교사 연수나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표 2>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3.86(0.72)	3.98(0.90)	3.84(0.80)	3.65(0.81)	4.07(0.73)	1,743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56.

학교적응과 그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와의 상관성이 0.904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과 학습수행 역시 0.902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학교적응과 교사관계로 0.659였다. 또한 학교적응 전체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하위영역은 또래관계였다. 이는 또래관계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유아의 개인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1) 유아의 성별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가 5점 만점에 3.67점, 여아가 4.09점으로, 여아의 점수가 남아에 비해 높았으며, 하위영역 간 편차도 여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에 따른 차이와 비교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점수 차는 학교적응 전체에서 0.42점, 일상생활 영역에서 0.64점, 학습수행 영역에서 0.31점, 또래관계에서 0.42점, 교사관계에서 0.16점으로, 일상생활 영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에는 교사관계적응(4.00점)이, 여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적응(4.3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영역별 적응 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학교적응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남아에 비해 빠른 여아의 성숙이나 친사회성이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애착이나 규칙 준수, 공감능력이 학습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적응 과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교사나 또래, 새로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남아의 적응 정도를 유심히 살피고 학기 초의 어려움이 고착화되어 추후 학업 성취나 또래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여아의 성숙이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적응 개념 자체가 여아가 가지고 있는(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신체적, 심리적 특징에 보다 부합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긍정적인 학교적응의 모습으로 간주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유아의 흥미나 창의성, 자율성 등과 상반되는 개념이나 소극적인 적응만을 다루지 않도록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6(0.72)	3.98(0.90)	3.84(0.80)	3.65(0.81)	4.07(0.73)	1,700
남	3.67(0.74)	3.69(0.93)	3.70(0.82)	3.46(0.83)	4.00(0.75)	924
여	4.09(0.63)	4.33(0.72)	4.01(0.75)	3.88(0.72)	4.16(0.70)	776
t	-12.744***	-16.180***	-8.334***	-11.163***	-4.505***	

주: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57.

2) 유아의 기질: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지속성

유아 변인으로써 기질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로써 접근/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지속성을 선정하여 기질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접근/회피성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쉽게 다가가고, 적응성이 높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주의집중/지속성이 높다는 것은 주의지속성이 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접근/회피성에 따른 전반적인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접근/회피성이 높은 집단의 유아는 학습수행과 교사관계에서 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상생활과 또래관계에서는 접근/회피성이 낮은 유아의 점수가 더 높았다.

적응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경우, 적응을 잘 할수록 학습수행과 교사관계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하위영역에서는 적응성이 가장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간의 점수 차가 매우 근소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주의집중/지속성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학교적응 및 학습수행과 교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변인과는 달리 주의집중/지속성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과 하위영역 점수가 일관되게 높았다.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새로운 것에 쉽게 다가가 시도하기보다 천천히 관찰하고 탐색하는 유아는 학교에서 질서나 규칙, 규범을 보다 잘 내면화하고 또래관계에서 보다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적응을 잘하고 주의집중력이 높을수록 학습에 필요한 행동이나 자세를 잘 갖추며 교사와의 관계도 보다 편안하고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기질에 따라 학습수행과 교사관계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 학습수행과 교사관계 간의 관계가 흥미롭게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기질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접근/ 회피성	하	3.87(0.66)	4.14 ^a (0.80)	3.74 ^a (0.76)	3.72 ^a (0.74)	3.93 ^a (0.74)	425
	중	3.88(0.76)	3.97 ^b (0.92)	3.89 ^b (0.83)	3.66(0.83)	4.13 ^b (0.73)	675
	상	3.84(0.73)	3.86 ^b (0.96)	3.92 ^b (0.78)	3.56 ^b (0.83)	4.17 ^b (0.70)	412
F	0.495	10.083***	6.402*	4.090*	14.416**		
적응성	하	3.82(0.73)	4.03(0.89)	3.73 ^a (0.83)	3.65(0.79)	3.96 ^a (0.76)	439
	중	3.88(0.72)	3.99(0.90)	3.86 ^b (0.80)	3.67(0.81)	4.12 ^b (0.72)	621
	상	3.90(0.71)	3.98(0.90)	3.93 ^b (0.78)	3.67(0.81)	4.14 ^b (0.70)	631
F	1.553	0.399	8.828***	0.042	9.216***		
주의집중/ 지속성	하	3.81 ^a (0.72)	3.99(0.91)	3.70 ^a (0.82)	3.65(0.76)	4.01 ^a (0.73)	339
	중	3.87(0.73)	3.99(0.90)	3.84 ^b (0.81)	3.67(0.82)	4.05 ^a (0.74)	886
	상	3.93 ^b (0.70)	4.01(0.87)	3.99 ^c (0.76)	3.66(0.81)	4.21 ^b (0.67)	466
F	3.140*	0.110	13.436***	0.112	9.942***		

주: *p < .05, **p < .01,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63.

다.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1) 지역규모

유아의 거주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대도시 3.94점, 중소도시 3.84점, 읍면지역 3.72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는 교사관계를 제외한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관계에서는 대도시 4.15점, 읍면지역 4.12점, 중소도시 4.01점으로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거주 유아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학교적응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보다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과 대도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대도시 거주 유아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유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역별 차이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환경이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읍면 거주 유아의 학교적

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지역과 학교의 환경으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 및 가정배경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이 더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조윤동, 조성민, 최인선, 2013) 지역 간 격차를 지역적인 측면으로 단순화할 수 없어 지역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대안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5〉 지역규모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7(0.72)	3.99(0.90)	3.85(0.80)	3.66(0.81)	4.08(0.73)	1,743
대도시	3.94(0.75)	4.07(0.89)	3.90(0.82)	3.76(0.86)	4.15(0.72)	700
중소도시	3.84(0.68)	3.96(0.89)	3.85(0.76)	3.62(0.74)	4.01(0.72)	831
읍면지역	3.72(0.75)	3.84(0.90)	3.68(0.90)	3.47(0.83)	4.12(0.79)	212
F	8.652***	6.457**	5.962**	12.600***	7.533**	

주: **p< .01, ***p<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58.

2) 가구소득

가구소득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학교적응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경우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일 경우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학교적응을 보였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학교적응 수준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학교적응 점수가 가장 높았던 집단은 월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가정으로 7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400-499만원, 500-599만원의 소득을 지닌 가정에서 가장 높은 학교적응 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학교적응과 세 하위영역(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에서 가구소득이 세 범주, 교사관계에서는 두 범주로 나누어지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유아의 학교적응이 가구소득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이나 지역과 같은 다른 변인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경제적 자본에 따른 차이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현재 2013년부터 영유

아를 대상으로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도입되면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의 질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기관이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집단이 주로 접근하는 기관에 대한 질의 관리도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표 6〉 가구소득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7(0.72)	3.99(0.89)	3.85(0.80)	3.66(0.80)	4.08(0.73)	1,640
100만원미만	3.40 ^a (0.86)	3.55 ^a (0.96)	3.28 ^a (0.98)	3.21 ^a (0.96)	3.82 ^a (0.76)	57
100-199만원	3.51 ^a (0.73)	3.64 ^a (0.96)	3.45 ^a (0.81)	3.33 ^a (0.72)	3.79 ^a (0.72)	152
200-299만원	3.83 ^b (0.70)	3.97 ^b (0.86)	3.79 ^b (0.78)	3.62 ^b (0.81)	4.05 ^b (0.75)	346
300-399만원	3.90 ^b (0.67)	4.02 ^b (0.87)	3.89 ^b (0.74)	3.68 ^b (0.77)	4.12 ^b (0.68)	375
400-499만원	4.06 ^c (0.66)	4.20 ^c (0.83)	4.06 ^c (0.74)	3.86 ^c (0.72)	4.17 ^b (0.69)	255
500-599만원	3.99 ^c (0.73)	4.11 ^c (0.87)	3.99 ^c (0.81)	3.78 ^c (0.82)	4.17 ^b (0.74)	195
600-699만원	3.88 ^c (0.66)	4.00 ^c (0.88)	3.89 ^c (0.68)	3.66 ^c (0.78)	4.07(0.71)	115
700만원이상	3.94 ^c (0.75)	4.00 ^c (0.92)	3.96 ^c (0.85)	3.74 ^c (0.83)	4.18 ^b (0.75)	145
F	13.324***	8.166***	14.809***	9.968***	6.139***	

주: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59.

3) 부모 학력

부 학력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4년제 대졸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 4.01점, 전문대졸 3.84점, 고졸 3.71점, 고졸 미만 3.37점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패턴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부 학력의 일관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부의 학력이 전문대졸이하일 경우 학교적응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끝으로 부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하위영역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 .001)으로 밝혀졌다.

〈표 7〉 부 학력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7(0.72)	4.00(0.89)	3.85(0.80)	3.66(0.80)	4.08(0.73)	1,584
고졸미만	3.37 ^a (0.74)	3.55 ^a (0.92)	3.24 ^a (0.81)	3.16 ^a (0.85)	3.76 ^a (0.72)	36
고졸	3.71 ^a (0.75)	3.83 ^a (0.94)	3.69 ^b (0.85)	3.49 ^a (0.79)	3.96 ^a (0.75)	455
전문대졸	3.84 ^b (0.69)	3.97 ^a (0.87)	3.80 ^b (0.77)	3.65 ^b (0.80)	4.07 ^a (0.73)	387
4년제대졸	4.02 ^c (0.68)	4.14 ^b (0.85)	4.02 ^c (0.75)	3.81 ^c (0.79)	4.19 ^b (0.69)	570
대학원졸	4.01 ^c (0.66)	4.16 ^b (0.83)	4.01 ^c (0.76)	3.80 ^c (0.74)	4.17 ^b (0.75)	136
F	18.374 ^{***}	11.491 ^{***}	18.714 ^{***}	14.809 ^{***}	8.588 ^{***}	

주: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60.

모 학력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은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부 학력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대학원 이상이 4년제 대졸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는 대학원 이상, 4년제 대졸, 전문대졸, 고졸, 고졸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나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적응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모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는 학교적응 및 모든 하위영역 유의미한 것(p < .001)으로 확인되었다.

〈표 8〉 모 학력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7(0.72)	4.00(0.89)	3.85(0.80)	3.66(0.80)	4.08(0.73)	1,584
고졸미만	3.32 ^a (0.77)	3.54 ^a (0.97)	3.18 ^a (0.84)	3.10 ^a (0.83)	3.66 ^a (0.78)	31
고졸	3.72 ^b (0.76)	3.84 ^a (0.94)	3.68 ^b (0.84)	3.51 ^a (0.81)	3.97 ^a (0.77)	493
전문대졸	3.84 ^b (0.68)	3.96 ^a (0.86)	3.82 ^b (0.76)	3.64 ^b (0.79)	4.04 ^b (0.69)	466
4년제대졸	4.05 ^c (0.66)	4.17 ^b (0.84)	4.05 ^c (0.74)	3.84 ^c (0.76)	4.23 ^c (0.69)	496
대학원졸	4.09 ^c (0.70)	4.23 ^b (0.87)	4.10 ^c (0.80)	3.84 ^c (0.80)	4.25 ^c (0.73)	98
F	21.360 ^{***}	12.840 ^{***}	22.292 ^{***}	16.002 ^{***}	12.320 ^{***}	

주: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61.

또한, 모 학력은 부 학력과 마찬가지로 고학력보다 저학력 집단에서 더 많은 점수 차를 보였는데 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과 4년제 대졸인 집단 간의 학교적응 점수 차는 0.04 점인 데에 반해 고졸과 고졸 미만은 0.4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수행적응에서 가장 두드러져 고졸과 고졸 미만의 학습수행 점수 차는 0.50점, 또래관계는 0.41점, 일상생활은 0.30점, 교사관계는 0.31점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력은 단순히 인지적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나 양육태도, 양육정보에의 접근성 등과 같은 변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모 우울

모의 우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모의 우울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모의 우울 수준에 따라 유아의 학교적응($p < .001$) 및 하위영역(일상생활, 학습수행 $p < .001$, 또래관계 $p < .01$) 점수에 차이가 있어 모의 우울이 심해질수록 교사적응을 제외한 영역 모두에서 점수가 낮아졌다. 우울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한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적응, 학습수행, 또래관계 측면에서 정상 및 경도/중등도와 중도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세 가지 수준별로 모두 차이가 있었다.

<표 9> 모 우울에 따른 유아의 학교적응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전체	3.87(0.72)	4.00(0.90)	3.86(0.80)	3.66(0.81)	4.09(0.73)	1,680
정상	3.90 ^a (0.71)	4.04 ^a (0.88)	3.89 ^a (0.80)	3.69 ^a (0.80)	4.09(0.73)	1,360
경도/중등도	3.80 ^a (0.72)	3.87 ^b (0.92)	3.78 ^a (0.80)	3.61 ^a (0.79)	4.09(0.69)	273
중도	3.41 ^b (0.83)	3.47 ^c (1.04)	3.33 ^b (0.85)	3.25 ^b (0.93)	3.86(0.74)	47
F	12.610***	12.697***	12.887***	7.355**	2.422	

주: ** $p < .01$, *** $p < .0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62.

모의 우울도 유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변인 중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울을 지닌 모의 자녀는 언어나 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의 우울은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지만 모의 우울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게도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유아의 개인 변인 및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유아 개인 변인 중 성별($r=-.29, p<.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는 가구소득($r=.159, p<.01$), 부 학력($r=.20, p<.01$), 모 학력($r=.22, p<.01$)과 우울($r=.11, p<.01$)이 강하지는 않지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개인 변인 및 가정환경 변인이 학기 초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0> 학교적응과 유아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과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	.081**	.052*	-.055*	.038	.011	-.005	-.023	-.003	-.292**
2. 접근회피		1	.599**	.206**	.021	.032	.050*	.064**	.017	-.025
3. 적응성			1	.180**	.050*	.027	.053*	.121**	-.009	.035
4. 주의집중/지속성				1	.036	.058*	.069**	.004	.010	.052*
5. 가구소득					1	.428**	.389**	.142**	.118**	.159**
6. 부 학력						1	.780**	.100**	.202**	.200**
7. 모 학력							1	.105**	.209**	.218**
8. 모 우울								1	.022	.111**
9. 지역규모									1	.099**
10. 학교적응										1

<표 11>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유아특성	3.603		3.184	
성별 ¹⁾	-.401	-.277***	-.402	-.277***
접근회피	-.104	-.054	-.113	-.059
적응성	.183	.071*	.144	.055
주의집중/지속성	.077	.029	.051	.020
가구특성				
가구소득			.035	.089**
부 학력			.040	.056

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모 학력			.086	.115**
모 우울 ²⁾			.104	.068**
지역규모 ³⁾			.067	.061*
<i>F</i>	33.767***		28.847***	
<i>R</i> ²	.082		.147	
<i>R</i> ² 변화량	.082		.065	

주: 1) 남아=1

2) 정상=1, 경도=0, 중도=-1

3) 대도시=1, 중소도시=0, 읍면=-1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 개인 변인 중 성별($\beta = -.28, p < .001$)과 적응성($\beta = -.07, p < .05$)이었고 주의집중/지속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있었으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 변량의 8.2%를 설명하였다.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는 가구소득($\beta = .09, p < .01$), 모 학력($\beta = -.12, p < .01$), 모 우울($\beta = .07, p < .01$), 지역규모($\beta = .06, p < .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누리과정 이용 기관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1) 5세 누리과정 이용 기관

5세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경험한 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5세 누리과정 이용 기관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을 보면 교사관계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을 이용한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왔지만 두 집단 간 점수 차이를 보면 학교적응이 0.05점이었고, 하위영역의 경우 학습수행과 일상생활 0.07점, 또래관계 0.05점, 교사관계 0.01점 순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2〉 5세 누리과정 경험 기관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유치원	3.92(0.72)	4.04(0.88)	3.91(0.81)	3.72(0.82)	4.12(0.72)	488
어린이집	3.87(0.73)	3.97(0.91)	3.84(0.80)	3.67(0.83)	4.13(0.73)	293
t	0.957	0.984	1.114	0.749	-0.155	78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75.

2) 혼합연령반 유무

혼합연령반 유무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학교적응 점수는 연령별 학급이 3.93점, 혼합연령반이 3.74점으로 0.19점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별 학급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았으며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두 집단 간에는 학습수행 0.24점, 또래관계 0.16점, 교사관계 0.18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수행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별 학급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3〉 유치원·어린이집 혼합연령반 유무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연령별	3.93(0.72)	4.04(0.89)	3.92(0.79)	3.72(0.82)	4.15(0.72)	665
혼합연령반	3.74(0.74)	3.87(0.88)	3.68(0.86)	3.56(0.86)	3.97(0.70)	116
t	2.500**	1.895	2.985**	1.966*	2.612**	781

주: *p< .05, **p< .01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79.

유치원 교사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을 <표 14>에서 살펴본 결과, 고졸이하의 교사는 없었으며 4년제대졸인 경우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졸 3.92점, 전문대졸 3.82점으로,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교사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일상생활 영역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교사에게 지도받았던 유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고 4년제대졸 교사에게 지도받았던 유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영역에서도 4년제대졸 교사에게 지도받았던 유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학교적응 및 전 하위영역에서 전문대졸 교사보다 4년제대졸 교사가 가르친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가 높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며 이와 함께 4년제대졸 교사보다 대학원졸 교사에게 지도 받은 유아의 적응 점수가 더 낮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표 14〉 유치원 교사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 현황

단위: M(SD), 명

구분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사례수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고졸이하	-	-	-	-	-	-
전문대졸	3.82(0.78)	3.89 ^a (0.97)	3.83(0.87)	3.60(0.89)	4.08(0.74)	157
4년제대졸	4.00(0.69)	4.14 ^b (0.83)	3.99(0.76)	3.80(0.80)	4.16(0.72)	208
대학원졸	3.92(0.68)	4.06(0.83)	3.87(0.80)	3.72(0.74)	4.11(0.68)	123
F	2.937	3.616*	1.829	2.543	0.513	488

주: * $p < .05$

자료: 장혜진 외(2013).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p. 80.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하위영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교사에게 속한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는 3.92점, 4년제대졸은 3.86점, 대학원졸은 3.71점, 고졸이하는 3.48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고졸이하 교사의 학급에 있었던 유아의 학교적응 및 하위영역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4.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갖추어야 할 태도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 교사 450명, 어린이집 교사 450명, 초등학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교사 대상 심층면담 결과와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성, 인성

측면에서 12문항, 학습수행을 위한 능력 측면에서 9문항을 선정하여 각 문항에 대한 필요성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소속기관별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 기본생활 습관 및 인성, 사회성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2개 모든 항목 모두에 대해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은 교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문항은 ‘정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마칠 수 있다’로 정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마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활동 시간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업이 40분 단위시간제로 운영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달성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에게 충분한 활동 시간이 제공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바른 자세로 일정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가위질, 풀칠, 간단한 종이접기 등 기본적 조작능력을 갖춘다’, ‘걸기, 뛰기 등 기본운동능력을 갖춘다’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와의 면담에서 학업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인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측면을 중시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친구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거나 집중해서 듣기, 열린 마음과 태도, 주변 정리, 배려, 협동 등의 인성적 측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는 등의 시간 개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및 태도와 관련하여 단위 학습 시간에 맞는 배변 훈련과 오랜 시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일부 교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취학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서 찾았다.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가 동영상 자료 활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 오히려 주의 집중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동영상 같은 시청각자료보다는 집중력 및 상상력 향상, 듣는 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적 활동과 관련해서 유아의 가위질, 종이접기, 끈 묶기 등에 필요한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운동 및 놀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통한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필요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문항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다수의 문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유아가 학교적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기대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개인차와 흥미를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재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과도하게 부응하여 유아에게 부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지 않도록 교사 간의 협의나 커리큘럼 운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5〉 기관별 초등학교 입학 시 유아가 갖추어야 할 항목에 대한 필요성: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성, 인성

단위: %(명)

내용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친구와 협동하여 놀이할 줄 안다	전체	-	0.6	15.5	83.9	100.0(1400)	3.8
	어린이집	-	0.2	15.6	84.2	100.0(450)	3.8
	유치원	-	0.2	12.2	87.6	100.0(450)	3.9
	초등학교	-	1.4	18.4	80.2	100.0(500)	3.8
	$\chi^2(df)/F$			14.3(4)**			5.8**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하고 양보할 수 있다	전체	0.1	1.1	14.8	84.1	100.0(1400)	3.8
	어린이집	-	1.1	17.1	81.8	100.0(450)	3.8
	유치원	-	0.7	10.9	88.4	100.0(450)	3.9
	초등학교	0.2	1.4	16.2	82.2	100.0(500)	3.8
	$\chi^2(df)/F$			11.5(6)			4.8**
인사를 잘 한다	전체	-	1.1	24.9	73.9	100.0(1400)	3.7
	어린이집	-	0.7	22.9	76.4	100.0(450)	3.8
	유치원	-	0.7	15.6	83.8	100.0(450)	3.8
	초등학교	-	2.0	35.2	62.8	100.0(500)	3.6
	$\chi^2(df)/F$			57.4(4)***			29.1***
바른 자세로 일정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전체	0.3	4.3	37.5	57.9	100.0(1400)	3.5
	어린이집	0.2	5.1	41.8	52.9	100.0(450)	3.5
	유치원	-	3.3	36.2	60.4	100.0(450)	3.6
	초등학교	0.6	4.4	34.8	60.2	100.0(500)	3.6
	$\chi^2(df)/F$			na			3.3*
배변을 조절하여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	전체	0.2	3.0	33.5	63.3	100.0(1400)	3.6
	어린이집	-	3.8	36.0	60.2	100.0(450)	3.6
	유치원	0.2	1.8	28.9	69.1	100.0(450)	3.7
	초등학교	0.4	3.4	35.4	60.8	100.0(500)	3.6
	$\chi^2(df)/F$			na			5.3**

내용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자신의 학용품을 챙기고 정리·정돈한다	전체	0.1	1.9	27.1	70.8	100.0(1400)	3.7
	어린이집	0.2	0.9	28.4	70.4	100.0(450)	3.7
	유치원	-	0.4	19.6	80.0	100.0(450)	3.8
	초등학교	0.2	4.2	32.8	62.8	100.0(500)	3.6
	$\chi^2(d.f)/F$			na			21.2***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전체	-	0.8	21.1	78.1	100.0(1400)	3.8
	어린이집	-	0.7	19.3	80.0	100.0(450)	3.8
	유치원	-	0.2	15.3	84.4	100.0(450)	3.8
	초등학교	-	1.4	27.8	70.8	100.0(500)	3.7
	$\chi^2(d.f)/F$			na			14.6***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	전체	0.1	0.7	23.0	76.1	100.0(1400)	3.8
	어린이집	-	0.4	22.4	77.1	100.0(450)	3.8
	유치원	-	0.2	16.2	83.6	100.0(450)	3.8
	초등학교	0.4	1.4	29.6	68.6	100.0(500)	3.7
	$\chi^2(d.f)/F$			na			16.9***
가위질, 풀칠, 간단한 종이접기 등 기본적인 조작능력을 갖춘다	전체	-	2.9	39.3	57.9	100.0(1400)	3.6
	어린이집	-	1.8	38.2	60.0	100.0(450)	3.6
	유치원	-	1.1	31.1	67.8	100.0(450)	3.7
	초등학교	-	5.4	47.6	47.0	100.0(500)	3.4
	$\chi^2(d.f)/F$			52.7(4)***			26.5***
걸기, 뛰기 등 기본운동능력을 갖춘다	전체	0.1	2.6	37.2	60.1	100.0(1400)	3.6
	어린이집	-	0.7	36.7	62.7	100.0(450)	3.6
	유치원	-	0.7	32.7	66.7	100.0(450)	3.7
	초등학교	0.4	6.0	41.8	51.8	100.0(500)	3.5
	$\chi^2(d.f)/F$			na			20.1***
정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마칠 수 있다	전체	0.3	4.6	46.6	48.5	100.0(1400)	3.4
	어린이집	-	4.7	49.8	45.6	100.0(450)	3.4
	유치원	-	2.4	39.8	57.8	100.0(450)	3.6
	초등학교	0.8	6.6	49.8	42.8	100.0(500)	3.4
	$\chi^2(d.f)/F$			na			15.2***
안전하게 놀이한다	전체	-	1.5	27.8	70.7	100.0(1400)	3.7
	어린이집	-	1.8	31.3	66.9	100.0(450)	3.7
	유치원	-	0.2	20.2	79.6	100.0(450)	3.8
	초등학교	-	2.4	31.4	66.2	100.0(500)	3.6
	$\chi^2(d.f)/F$			28.8(4)***			14.3***

주: *p< .05, **p< .01, ***p< .001

자료: 장명림 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3·4세 연계 방안 연구. p. 148-149.

나. 학습수행 관련 능력

학습수행 관련 능력에 관해서는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성, 인성보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등학교 교사 면담에서도 특정 지식을 갖추고 오길 바라기 보다는 학습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다. 학습수행 관련 능력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서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성, 인성의 경우보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비교하면 ‘한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필요성이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친구의 말이나 교사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와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안다’로 평균 3.6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흥미롭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아는 것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63.4%의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각각 81.1%, 72.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쓰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한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로 30%의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도 초등학교 16.2%, 유치원 40.0%, 어린이집 44.9%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의 여전히 기관에 따른 교사의 인식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보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유일하게 ‘글씨를 획순에 맞게 쓴다’로 확인되었다. 획순에 맞게 글씨를 쓰는 것이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아는 자연스럽게 글자 쓰기를 경험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획순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에서 획순을 수정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면담에서는 획순 외에도 연필 바르게 쥐기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글씨 쓰는 자세나 오랜 시간 글씨를 쓰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취학 전 교육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기를 요청하였다. 획순에 맞게 쓰기와 연필 바르게 쥐기는 초등학교 교사가 강조하는 학교적응의 요소이지만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아니라 학교급 간의 의사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16〉 기관별 초등학교 입학 시 유아가 갖추어야 할 항목에 대한 필요성

단위: %(명)

내용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있게 말한다	전체	0.2	2.4	39.6	57.8	100.0(1400)	3.6
	어린이집	-	1.1	36.9	62.0	100.0(450)	3.6
	유치원	-	0.4	27.6	72.0	100.0(450)	3.7
	초등학교	0.6	5.4	52.8	41.2	100.0(500)	3.4
	$X^2(df)/F$			na			60.9***
친구의 말이나 교사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전체	0.3	1.8	28.6	69.4	100.0(1400)	3.7
	어린이집	-	1.1	31.6	67.3	100.0(450)	3.7
	유치원	-	0.7	18.0	81.3	100.0(450)	3.8
	초등학교	0.8	3.4	35.4	60.4	100.0(500)	3.6
	$X^2(df)/F$			na			28.8***
연필을 바르게 쓴다	전체	0.8	4.8	46.3	48.1	100.0(1400)	3.4
	어린이집	-	3.6	52.7	43.8	100.0(450)	3.4
	유치원	0.2	2.9	43.8	53.1	100.0(450)	3.5
	초등학교	2.0	7.6	42.8	47.6	100.0(500)	3.4
	$X^2(df)/F$			na			6.1**
글씨를 획순에 맞게 쓴다	전체	1.0	11.1	51.6	36.2	100.0(1400)	3.2
	어린이집	0.2	10.4	58.7	30.7	100.0(450)	3.2
	유치원	0.7	7.6	56.9	34.9	100.0(450)	3.3
	초등학교	2.0	15.0	40.6	42.4	100.0(500)	3.2
	$X^2(df)/F$			na			1.0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안다	전체	0.2	3.0	24.6	72.1	100.0(1400)	3.7
	어린이집	-	2.4	24.7	72.9	100.0(450)	3.7
	유치원	-	0.7	18.2	81.1	100.0(450)	3.8
	초등학교	0.6	5.6	30.4	63.4	100.0(500)	3.6
	$X^2(df)/F$			na			24.5***
간단한 낱말과 짧은 문장을 듣고 쓸 수 있다	전체	1.4	9.3	52.3	37.1	100.0(1400)	3.3
	어린이집	-	5.6	54.0	40.4	100.0(450)	3.4
	유치원	0.7	5.3	50.7	43.3	100.0(450)	3.4
	초등학교	3.2	16.2	52.2	28.4	100.0(500)	3.1
	$X^2(df)/F$			77.0(6)***			33.3***

내용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	전체	1.2	7.9	52.6	38.3	100.0(1400)	3.3
	어린이집	0.4	5.1	51.3	43.1	100.0(450)	3.4
	유치원	0.7	2.2	48.2	48.9	100.0(450)	3.5
	초등학교	2.4	15.4	57.8	24.4	100.0(500)	3.0
	$X^2(df)/F$			113.3(6)***			57.0***
한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전체	2.1	13.3	51.5	33.1	100.0(1400)	3.2
	어린이집	-	6.4	48.7	44.9	100.0(450)	3.4
	유치원	1.1	7.6	51.3	40.0	100.0(450)	3.3
	초등학교	5.0	24.6	54.2	16.2	100.0(500)	2.8
	$X^2(df)/F$			176.1(6)***			98.5***
새로운 것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자 한다	전체	0.1	2.2	36.1	61.6	100.0(1400)	3.6
	어린이집	-	1.1	33.3	65.6	100.0(450)	3.6
	유치원	-	1.1	29.8	69.1	100.0(450)	3.7
	초등학교	0.2	4.2	44.2	51.4	100.0(500)	3.5
	$X^2(df)/F$			na			22.0***

자료: 장명림 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3·4세 연계 방안 연구. p. 151-152.

5.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을 누리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고 정책 제안을 두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 운영의 질 향상 둘째, 초등학교로의 보다 원만한 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나누었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의 기본 방향

1) 학교적응을 위해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이 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학교적응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인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학교적응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또래관계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 일상생활, 학습수행, 교사관계에 대한 적응보다 떨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래관계에 대한 적응이 낮다는 것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공감하기, 배려하기 등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적응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시점에서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누리과정 운영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출발점 평등을 위한 누리과정 이용 기회 및 균등한 질 보장 필요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부모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교육·보육비가 부담되거나,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가정도 존재하여 유아가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누리과정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모든 유아가 누리과정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유아 발달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조

본 연구결과에서 밝혔듯이 1학년 유아의 학기 초 학교적응은 취학 전에 이용한 기관 및 교사 변인보다 유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그만큼 가정환경이나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유아의 발달을 위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대대적인 공익 광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역량 강화 등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결손의 누적을 중재하기 위한 취학 전·후 기관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이미 발달이나 기초학습능력 측면에서 결손이 있으면 초등학교 적응이나 학습이 뒤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학 전 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활동에 대한 기록이 초등학교로 연계되어 초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이러한 관심이 학습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유아의 여러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유아의 결손이 시작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유아의 발달이나 학습의 지연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개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책 방안

본 연구의 정책 방안은 누리과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과 초등학교로의 원만한 전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기 초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었다. 각 방향에 따라 각각 단기 및 중기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가) 단기 정책 방안

(1) 또래관계를 지원하는 연수 및 프로그램 필요

원활한 학교적응을 위해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 유아의 학기 초 학교적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또래관계적응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유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참을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누리과정에서의 인성교육 강조,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정연계 활동, 인성교육이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한다.

(2) 지속적인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

앞서 누리과정 홍보를 통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누리과정 홍보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누리과정의 출발점 평등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유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 이른바 부모의 문화자본에 따라 유아의 발달이나 성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닌 교육적 문화자본을 키울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놀이의 효과, 또래관계의 중요성 등을 알려주어 부모로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취약 계층 유아 및 부모 대상 지원 강화

학교적응 정도를 알아본 결과 유아 성별 측면에서는 남아의 경우가 보다 취약하였으며 부모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거주지가 읍면 지역에 위치한 경우 등에 따라 유아는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한 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하는 기관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으로서의 지역사회 자원을 확대하여 누리과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나) 중기 정책 방안

(1)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최소수업연한이 4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학력과 유아의 학교적응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문대졸보다는 4년제대졸 교사에게 지도받은 유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에는 고졸 학력을 지닌 교사가 없었으나 어린이집에는 존재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최저자격기준이 상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 누리과정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전체 교사로까지 확대하여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령별 학급 제안 및 연령별 활동 보장

기관 관련 변인 중에서 유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별 학급 유무였다. 즉, 연령별 학급에 속했던 유아의 학교적응이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나, 혼합연령보다는 연령별로 학급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혼합연령반의 장점도 있으나, 만5세 단일학급의 경우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준비하기 수월하며 초등학교 연계 활동을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연령별로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령별 학급이 필요하며 혼합연령반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 교사 인력이나 유아 수준에 적합한 활동이나 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부모의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의 우울 정도는 유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우울이 심한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정서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부모의 우울한 정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우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연계를 위한 지원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중기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가) 단기 정책 방안

(1)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계 활동 실시

기관에서의 초등학교 적응 및 연계 활동은 유아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나 상호 견학, 생활기록부 이첩 등이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이나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기록부 이첩은 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 가정과의 연계 강조

기관에서의 초등연계 및 적응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가정과 연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부모가 초등학교로의 전이나 연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전 초등연계 및 적응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학교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초등적응의 중요성을 알리거나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및 다른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3) 누리과정 활동 내에서의 초등연계 강화

앞서 지적하였듯이 초등적응 및 연계는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적응이나 연계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누리과정 운영 외의 시간이 아니라 누리과정 운영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라는 주제일 경우 공공기관이나 시장을 찾아가 보는 활동에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누리과정 활동 내의 초등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4)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전반적인 연계 강화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예전부터 강조되고 있는 이슈로 문서상의 교육과정 연계와 더불어 유아 및 활동에 대한 관점이나 철학에 대한 공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커리큘럼을 연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 철학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취학 전 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의 연계가 문서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아에 대한 관점이나 활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철학으로까지 확대되어 커리큘럼 연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개발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누리과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보육 전공자뿐만 아니라 교과 전문가와 함께 누리과정의 계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중기 정책 방안

(1) 육아지원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취학 전 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공식적인 협력 체제가 마련되어 초등학교와의 연계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기관에 비해 초등학교 내 위치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의 협력이 용이하여 다양한 연계 활동을 실행하기 용이한 환경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초등학교와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소속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의 연결이나 협력 체계 구축이 힘든 상황이다. 보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근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협력 벨트로 묶어 연계 활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초등학교에서 학교에 관한 정보나 입학에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육아지원기관 교사나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력의 한 방법으로 교사연수 시 유아교육·보육 및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서로 연수강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기본학습을 위한 초등학교의 역할 강화

현재 정부는 기본학습이 부족한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학습 수준에만 머물고, 유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의 결손이 누적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손 수준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 기본학습 수준을 진단하여 결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초기본학습을 지원하는 전담 교사 팀을 구성하여 꾸준히 해당 유아를 관찰·지도하도록 한다.

(3) 초등학교 입학 초기 수준에 대한 연구 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입학 초기 능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 같은 유아를 대상으로도 활동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누리과정이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이 90% 이상이며 이 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연령인 만 3-5세, 최소한 만 5세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 갖추어야 할 수준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아동 참여 현황조사.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성숙·송미영·김준엽·이현숙(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 간 학력 차이이 따른 초, 중, 고 학교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1), 51-72.
- 김수정·곽금주(2010a).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숙·박순경·최정순·이효녕·송지윤·박영미(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국제 비교. *교육과정평가원*.
- 김창복·김민진·김호·윤은주·이대균·정지현·한석실(2011). 유·초 연계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 유아교육학회 2011년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178. 서울.
-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은주·심우엽(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4(1), 285-310.
- 부경희(2009). 교사용 초등학생 학교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2(4), 185-205.
- 염미애·문혁준(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습수행성취에 관한 중단연구. *유아교육연구*, 28(6), 91-118.
- 이진숙(2004). 취학 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중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장명림·장혜진·이환기·이승미·송신영·최미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3·4세 연계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2-32*. 육아정책연구소.
- 장성화·윤향숙·김순자·박영진(2010).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사회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교육종합연구*, 8(2), 140-157.
- 장혜진·김은설·상경아·송신영(2013). 5세 누리과정 효과분석 기초연구: 초등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13-35*. 육아정책연구소.

- 정대현·지성애(2006).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0(1), 207-227.
- 정윤미·장영애(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0(1), 91-102.
- 조운동·조성민·최인선(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지역 규모별 특성 분석 - 2010년, 2011년 초등학교 수학과 결과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52(3), 303-317.
- 홍성도·최성구·김지혜·김의정(2003). “아동 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표준화 연구[Ⅱ] :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탐색 및 기준 수립. 신경정신의학, 42(1), 96-115.
- 최성구·김승태·이소영·정유숙·홍성도·김이영(1999). “아동 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201-210.
- 최옥희·김용미(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최옥희·김용미·김영호(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습수행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 최지영·양현주(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d, H. A.(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I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사례발표(I) I

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

●● 단은미 (인천 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누리과정 발전포럼(사례발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

인천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단은미

목 차

- ⊗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
- ⊗ 유초연계교육과정 협의회 구성
- ⊗ 교수학습 방법 연계
- ⊗ 교육환경 연계
- ⊗ 교육행사 연계
- ⊗ 발표를 마치며

1. 교육과정 연계



장영숙 외, 2002
김대현, 김석우, 1996

2. 유치연계 교육과정 협의회 구성



⊗ 구성원

- 원(교)장, 원(교)감
- 1, 2학년 담임교사
- 유치원 교사

⊗ 협의 시기

- 연 3회
- (학기 초, 1학기말, 학년말)

⊗ 협의 내용

- 교육과정 연계방안
- 공동행사 추진방안
- 학교시설 활용방안
- 교육환경 구성방안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학교 어린이의 인터뷰



1학년 서주애 어린이

2. 교수학습방법 연계-주간학습안내(사례 1)

☞ 유치원-봄

☞ 초등학교-봄

대·소집단활동	이야기나 누기	주말 지낸 이야기	봄 날씨와 생활	봄에 볼 수 있는 식물
	동시·동 화·동극	동시) 개구리와 올챙이		동화) 봄이 왔어 요
	음 악		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	
	신 체·계 임	신체) 식물의 성 장		게임) 봄꽃 피우 기
	미 술		칠교 구 미기) 바람개 비	

3교시	수학	봄1	봄1	봄1	봄1
	심화보 충(답 양제 량)(1/ 1) 생활 속 수예 대 야기 나 누기	1. 봄맞 이(8/17) 이(바) 제 지 리에 정리 정 돈	1. 봄맞 이 (10/17) (줄)개 구리저 럼 풀작	1. 봄맞 이 (12/17) (줄)봄 을 나타 내요 (2/2)	1. 봄맞 이 (15/17) (줄)산 넘고 물 건너
	-쪽	30-31 쪽	34-35 쪽	36-37 쪽	42-43 쪽
4교시	창 제	봄1	봄1	봄1	봄1
	녹색성 장교육 (3/7) 땃밭가 꾸기 (자유 활동)	1. 봄맞 이(9/17) (줄)봄 오는 소 리	1. 봄맞 이 (11/17) (줄)봄 을 나타 내요 (1/2)	1. 봄맞 이 (13/17) (술)무 엇이 달 라졌나 요? (1/2)	교통안 전교육 (1/1) (바)교 통안전 교육
	-쪽	32-33 쪽	36-37 쪽	38-41 쪽	쪽

교수학습방법 연계(활동)

☞ 유치원-봄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음악)



◎목표

- 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안다.
- 봄의 다양한 소리를 알고 구분한다.
- 자신의 느낌을 적절한 문장으로 말한다.
-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참고>5세누리과정교사용지도서 11,p.66~67

교수학습방법 연계(활동)

☞ 초등학교-봄봄은 소리(표현놀이)



◎목표

참고>초등학교교과용지도서 1-1,p.213

교수학습방법 연계-주간학습안내(사례 2)

유치원-나와 가족

이야기나누기	초의 날 부모님의 마음을 가늠해 해드리요	누가 영는 차라일까요	가족 간의 애정
동사동명동국		이서선생님과 함께하는 동화	(동화) 사촌 동생 쿠아
음역	사랑		
신체게임	오리	게임	게임 날 경기
미술	귀여운 만들기		
상해활동	바깥놀이		
건축	세우는 책보도	해수리살이전	방울도마토
준비물	비행기의 경우	살기마	책속북

초등학교-가족

22시	1. 만일 할아버지인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4. 가정을 알아오기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3. 만일 할아버지인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5. 만일 할아버지인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1. 우리 가족(2인) 1인 가족의 구성과 역할 의 차이
수학	중	중	중	중	계량
32시	3. 만일 할아버지인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2. 세력(15/19)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2. 세력(11/19)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2. 세력(19/19)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인문(중1) 물리(중1)를 주제로
국어	중	중	중	중	계량
42시	4. 가정을 알아오기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2. 세력(15/19)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2. 세력(11/19)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가정원 사모는 할아버지	1. 우리 가족(2인) 1인 가족의 구성과 역할 의 차이	인문(중1) 물리(중1)를 주제로 강사한 마 를 준비
	중	중	중	중	계량
52시					
계량					

교수학습방법 연계(활동)

유치원-나와 가족 가족

간의 예절(이야기나누기)

◎목표

- 가족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안다.
-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

목표

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

활동 방법

1.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2.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3.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활동 방법

1.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2.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3. 그림을 보고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예절을 알고 지킨다.

참고>5세누리과정 교사용지 2,p.124~125

교수학습방법 연계(활동)

- ☞ 초등학교_가족_우리 집의 규칙과 예절(실천)
- ◎ 목표
 - 상황에 따른 인사예절을 안다.



참고>초등학교교과용지도서 1-1,p.329

교수학습방법 연계(일과운영)

- ☞ 유치원

시 간	활 동 내 용
08:40~	등원 지도
09:00~	아침인사 및 일과 소개, 활동 계획
09:20~	이야기 나누기
09:40~	대집단 및 소집단활동
10:30~	바깥놀이 활동
11:10~	요일별 특색활동(동화듣기, 책만들기 등)
11:30~	손씻기 및 점심식사,양치(위생, 영양 교육)
12:30~	자유선택활동 및 평가
13:30~	간식
13:50~	일과회상 및 평가
14:00~	귀가지도 및 방과후과정 시작

교수학습방법 연계(일과운영)

☞ 초등학교

시 간	활 동 내 용
08:20~	등원지도
08:40~	아침활동
09:10~	1교시 및 휴식
09:55~	2교시 및 휴식
10:35~	중간놀이 활동(실외 자유놀이시간)
11:05~	3교시 및 휴식
11:50~	4교시 및 휴식
12:30~	점심식사
13:20~	5교시

교수학습방법 연계



☞ 안전교육(재난 대피,
화재예방, 교통안전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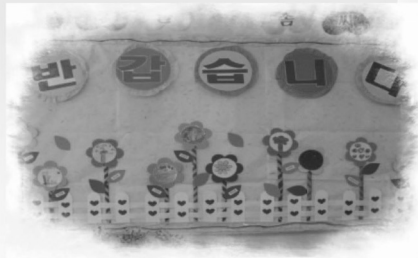
3. 교육환경 구성

☞ 초등학교

☞ 학기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환경을
비슷하게 구성



☞ 유치원



교육환경 구성

☞ 유치원



☞ 환경변화에 따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초등학교



교육환경 구성

☞ 누리과정

-생활주제-나와 유치원

☞ 초등과정

-대주제-학교와 나



교육환경 구성(교실내 구성)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육환경 구성(실외영역-텃밭, 놀이터)

☞ 유치원, 초1,2학년 전용 놀이터



☞ 녹색성장 교육-텃밭 가꾸기



4. 교육행사 연계

☞ 조부모 참여수업
-효(인성)실천교육

*누리과정-생활주제-나와 가족

*초등교육과정-대주제-가족



교육행사 연계

☞ 도서관체험활동

*누리과정-생활주제-우리 동네

*초등교육과정-대주제-이웃



교육행사 연계

경제교육(시장놀이)

*누리과정-생활주제-나와 가족

*초등교육과정-대주제-가족



발표를 마무리하며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뷰



1학년 담임 전현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I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사례발표(II) I

누리과정 연계 사례 발표(II)

●● 오민아 (제주 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교사)

누리과정발전을 위한 수도권 2(서울, 인천, 제주) 지역 토론회

누리과정연계 사례

오민아
제주 하나몬테소리 교사



누리과정

만 3 ~ 5세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과 보
육과정이 통합된 **공통과정**을 제공



•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
-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
-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
- 라. 만 3~5세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구성
- 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
-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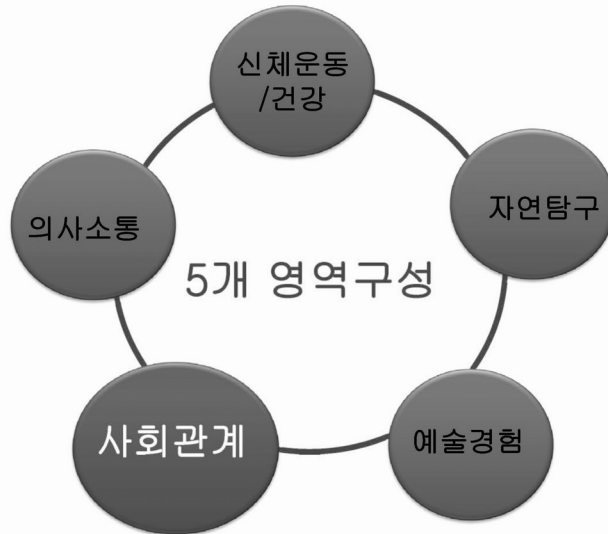


3-5세 연령별누리과정

목적 :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

목표

1.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습관을 기른다.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5.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사회관계영역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실천사례: 가족의 날 (행복한 아이들의 가족사랑 이야기)



주제 선정 이유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
- 다양한 활동을 통한 가족 구성원 상호간 친밀감 형성
-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의 특별한 활동으로 감정 전달
- 특히, 이혼율 1위인 제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이 공유되는 기회 제공
- 맞벌이 부모들의 바쁜 일상과 연계된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의 날” 구성으로 교육의 주체인 부모, 교사, 유아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의 계기 제공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제공

활동목표

1. 나에 대한 이해를 어린이날과 연계하여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을 탐색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게 활동을 경험한다.
2.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가 태어난 가정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의 시작인 결혼식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다.
3.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모습은 각 가정마다 다양함을 안다.
4. 가족의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알고 가족나무를 만들어서 가족의 뿌리를 알아본다.
5. '가족의 날'에 가족모두가 참여하여 가족이 행복하려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경험한다.

<도입>활동내용1

나에 대한 탐색 :

- 내 뼈 구성하기
- 내 키 만큼 쌓아요
- 내 몸 속 기관의 명칭
- 나는 특별해요
- 나는 소중한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나는?)
- 친구와 내 몸 그리기
- 나의 역사
- 컵 케익 만들기

<도입>활동내용2

가정의 시작

- 결혼식 놀이
- 족욕제 만들기
- 카네이션 꽃꽂이
- 자연물 이용한 엄마,아빠 얼굴 그리기
- 결혼식사진 꾸미기
- 아빠, 엄마 하면 떠오르는 생각

<도입>활동내용3

가족의 뿌리

- 가족의 역사(관계)
- 가족신문
- 가족사랑 쿠폰 만들기
- 행복이란?
- 옛날이야기 노래 부르기
- 우리 집 가훈소개하기

<전개>활동내용1

가족의 날 행사

- 행사장 꾸미기
- 가족과 함께 축복인사나누기
- 가정의 시작 : 결혼식(옛날과 오늘날의 결혼식)
- 부부의 날 소개
- 가족 앞에서 노래 부르기
- 엄마,아빠에 대한 생각 발표

- 행복한 가족이란?
- 가족친화력과 결속을 다지는 게임
-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노래 부르기
- 케익만들기

<마무리> 활동내용

- 우리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쓰기
- 함께하는 즐거움 표현하기
- 가족의 소중함 깨닫기 "만약에~"

결과 및 평가

- 부모와 유아들에게 소중한 체험과 추억이라며 감사와 격려의 문자와 메시지를 받게 됨.
- 유아들4주간의 활동결과물들을 게시하여 행사장이 더욱 밝아지고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
- 가족의 날 계기가 되어 각 가정에서 좀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제주가 이혼률1위라는 부끄러움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음.
- 4주간 가정과의 친밀한 연계로 유아와 유아가 속한 가정을 이해하게 되었음.
- 함께 행사를 돕는 동료교사간의 협조와 격려 속에 동료애를 느낌.

제안한다면

-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몇몇 가정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연구
- 다양한 가족구조(이혼가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연구.
- 가정의 소중한 마음을 유지 실천 할 수 있게 부모/자녀간의 대화법 교육실시



|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수도권 2지역 토론회 지정토론 |

지정토론

- 이종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흥옥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장)
- 박지현 (구립면일어린이집 교사)
- 마미정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의 연계에 관한 토론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부속유치원장)

토론자 자기소개: 아동학전공자로서 유아교육에 초점을 두어 공부. 4년제 대학의 아동학과에서 22년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였음. 현재는 대학부속유치원장을 겸직 중. 32년의 역사를 지닌 부속유치원은 대부분의 유치원과는 달리 만 3, 4, 5세 혼합연령 학급 구성을 31년간 고수하였으나, 2014년에 들어 만 5세 학급의 분리운영을 시도해보고 있음.

토론 대상: 장혜진 부연구위원님(육아정책연구소), 단은미 선생님(인천 계양초등 병설), 오민아 선생님(제주 하나문테소리)의 발표를 토론 대상으로 함. 장혜진 연구위원께서는 작년 2013년에, 만 5세 누리과정 시행 1년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유아들의 학교적응 현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단은미 선생님과 오민아 선생님은 유-초 연계를 고려한 누리과정 실천 사례를 보고.

(시작 전 첨언: 토론을 의뢰받았을 때 요청받은 바는 세 가지 원고에 대한 토론을 하되, 지역 및 기관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요구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두 분 현직 선생님의 사례 원고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요구보다는 누리과정의 의미 있는 적용을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하신 바를 담은 PPT 슬라이드였음. 따라서 사례에 대해서는 초등연계에 관한 두 분 선생님의 시각을 토론자가 어느 정도 추정하여 토론할 것이며, 토론의 많은 부분이 장혜진 연구위원님의 연구에 할애될 것임.)

장혜진 연구위원님의 초등 1년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육·보육 영역에서 우리가 돌보고 가르친 어린이들이 우리 영역을 떠난 후 어떠한 전환기의 삶을 사는지를 들여다본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직무를 보다 온전히 마무리하고, 누리과정의 발전방향을 다시금 모색하고자 하는 전문적 책임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유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초등교육 현장에 진입하여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특별히 고무적이었다.

연구를 살펴보면 본 토론자는 연구자의 원래 바람은 개발 시 유초연계를 특별히 강조했던 5세 누리과정이 실제로 초등 1년생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누리과정을 실험적 처치로 택하여 다른 커리큘럼과 비교 검증을 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지극히 실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의 연구와 같이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전국의 초등 1년생 1700여명을 표집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유아 개인변인(성별, 기질)과 가정환경 변인(거주지 규모, 가구소득, 부모학력, 모우울), 그리고 기관변인(유치원/어린이집, 혼합연령반 여부, 교사학력)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기하였듯이 이 연구는 실험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누리과정의 적용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 우리나라 초등 1년생들의 학교 적응에 관련된 전반적인 경향이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적응 점수가 남아에 비하여 여아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자도 언급하셨듯이 여아의 빠른 성숙이나 친사회성 또는 친여아적인 학교적응의 개념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에 관련된 결과로,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모의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환경적 상황들과 함께 다른 부정적인 환경변인들이 결합되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로서 이 역시 누리과정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향후의 누리과정이 다른 많은 커리큘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아와 취약계층 유아의 초기 학교적응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이다.

한편, 본 토론자는 연구자가 제시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부연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연구자께서는 초등1년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학교적응 하위 영역이 또래관계 영역이었던 결과에 기초하여 좀 더 확대된 인성교육의 기회 제공,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및 가정연계 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을 중시하거나 우위에 두는 것은 누리과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교육철학적 차원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교육과정 모델들에서도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이견은 없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인성교육을 어떤 의미의 목적 및 목표와 관련지어 진술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표면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 즉 활동으로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목표차원과 연결되는 인성교육의 내용

으로는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의 여섯 가지를 명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성교육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공히 중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저변을 흐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강물처럼 일상 속에서 잠재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기초형성, 전인발달, 홍익인간, 인의예지 등과 같은 보다 궁극적인 교육 목적의 성취에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인성교육 부분 집필진들께서도 이미 감안한 사항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토론자가 현장의 만 5세 누리과정 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 현재와 같이 드러내는 방식의 인성교육 방법은 인성교육을 보다 쉽게 시도하고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에 모든 생활주제에서 인성교육을 드러내어 다루는 접근법으로 인하여 인성보다는 다른 교육적 측면과 연관 짓는 것이 더 적절한 생활주제일 경우에 느끼는 곤란함과 부담감, 특정 활동을 지정하여 그 속에 인성교육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 일상생활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동기 감소 가능성 등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후자의 경우를 ‘내용과 활동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상기와 연계성이 흐려지는 경우’로 일컫는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은 현재와 같이 인성교육을 드러내서 하는 방법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루는 일상적인 방법, 그리고 인성교육의 내용요소와 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과 궁극적인 목적에 관련되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교사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본 토론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논점은, 교사의 자격기준에 관련된 제안이다. 해당 제안의 요지는 유치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교사의 유아들이 더 높은 학교적응 점수를 받은 결과에 근거하여 누리과정 담당 교사뿐 아니라 전체 교사로까지 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사 자격기준의 강화는 어린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직무의 엄중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유보통합이라는 난제를 풀기위한 한 축으로서 기존의 교사들에게 학력 진작의 통로를 마련해서라도 응당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응답자로 참여한 초등교사마다 학교적응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소나마 달랐을 가능성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이 통계적인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내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학력기준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하기에는 다른 다양

한 근거 논리와 객관적 결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초등 학교 적응의 차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고 본다.

본 토론에서 세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논점은 연령별 학급제안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께서는 혼합연령반에 속했던 유아의 학교적응이 연령별학급에 속했던 유아의 학교적응 점수보다 낮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혼합연령 학급구성을 연령별 구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뒤따른다. 학교적응의 정도를 혼합연령 경험의 유무에 의한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다루는 것이 이론적·논리적으로 얼마나 합당한지,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전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인지 등의 문제이다. 설령 혼합연령을 경험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학습이나, 또래관계, 일상에서의 적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동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대다수인 요즘의 출산문화 속에서 기관에서나마 동생을 맞이하고 형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 해볼 수 없는 경험을 생의 초기에 접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 비록 본 토론자가 소속된 유치원도 올해부터 만5세 학급을 분리해서 운영하고는 있으나, 혼합연령 학급 구성을 선호하여 본 유치원을 택했던 적지 않은 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인격 형성에 혼합연령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5세반의 분리운영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한 것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경우로 사료된다. 현재의 출산 문화 속에서 초등학교 적응이나 연계를 중시하여 혼합연령 학급구성을 폐지하기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누리과정의 많은 면모를 초등학교 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전제에 힘을 신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실생활 경험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듀이의 관점을 적용해 보더라도 왜 누리과정이 혼합연령을 연령별로 바꾸는 식의 초등학교 연계를 해야 하는지, 오히려 향후 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유아시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와의 이질성을 확보해야하는 측면은 없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네 번째로 특기할만한 정책적 논점은 초등학교 1년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계활동의 실시 제안이다. 초등학교에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유·초 연계활동을 제안하는 데는 어떠한 이견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시금 유의하고 고민해야할 한 가지는 ‘어떤 적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커리큘럼의 내적 연계성과 외적연계성을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적 연계성이란 하루 일과를 포함하는 주·월·연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으로 각 부분이 얼마나 아동의 주도성과 자율성의 습득, 아동의 권

리와 행복의 증진과 같은 중요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연계성이란 본 연구에서 역점을 둔 유-초 연계와 같은 것이다. 두 가지 연계성은 모두 중요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만일 두 가지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한 가지의 연계성을 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적 연계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현재의 누리과정이 동화와 동시, 또는 이야기나누기를 통한 인성교육을 여러 영역과 국면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하루 일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의 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유선택활동 직전의 활동소개 모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제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토론자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여겨왔음을 언급하고 싶다.

단은미, 오민아, 두 분 선생님의 실천 사례는 이와 같은 의문과 고민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단은미 선생님은 누리과정에서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는 문서상의 유초연계성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하여 유초연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 행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초 연계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였다. 오민아 선생님은 유초연계를 위해 중시해야 할 누리과정의 영역은 무엇보다도 사회관계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관계 영역에 초점을 둔 ‘나와 가족’에 관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교육과정의 시작에 앞서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상기하는 단계를 기술하였다. 초등학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인성교육으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중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은 개발과 제도화에 있어서 이례적인 행정적 추진력과 각계각층의 노고가 투입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이다. 더욱이 5세를 대상으로 한 적용 후 이듬해에 3, 4세로의 확대 적용을 조속히 이루어 냈으로써 유아교육·보육 영역에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것 또한 분명하다. 이상적인 유초연계를 통한 유아들의 초등학교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유초협력체계구축과, 입학초기 능력 및 지식 수준에 관한 연구의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상기한 몇 가지 제안점이 고려될 수 있다면, 좀 더 본질적인 적응, 생활과 삶에의 적응으로 다가가는 누리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리과정 연계: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은 취학 전 1년간의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취학전 교육의 출발점 평등의 효과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학습자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유초 연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0년대부터 유초연계 관련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유초등연계교육의 현주소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초연계교육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여전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물리적 교육환경의 차이, 자료와 시설의 공동 활용과 공동 학습활동의 미흡 및 행사중심의 단편적인 연계활동의 시행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험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존 경험과 다르게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상이한 경험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에 유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학교적응은 이후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의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학교적응 현황을 개인, 가정 및 기관 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유아의 학교적응을 위한 준비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유초 연계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원고내용을 기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위한 누리과정 연계방안을 위하여 현 유초연계교육의 실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위한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로 상호교육과정 관

련요소를 지도서에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만 5세 누리과정의 교사용지도서에 생활주제별 활동을 선정 시 각 활동의 초등학교 관련요소를 제시하여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초등 교육과정에서도 교사용지도서에 단원학습의 연계로 선수학습에 유치원의 누리과정 관련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서상에 상호교육과정 관련 요소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경험은 거의 전무하여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경기도 B시의 경우에는, 7년 전의 유치원 교사들에게 공개한 1학년 수업을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서로 연계된 공개수업이나 그 외 관련 연수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한다. 단지 연간 교육 과정 편성 시 유초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간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치원에 강조해 왔을 뿐이라고 한다. 물론 경기도 O시의 경우에는 일부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연계교육 연수, 교육과정 공동 연구 등에 대한 방침이 설정되어 부분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역시 지속적인 효과나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상으로 교육과정 연계를 강조하기 보다는 그 실효성을 위해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수업참관, 교사연수 및 교육활동의 교류 기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초기 적응을 위하여 공통적인 기본운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치원은 연간 유초연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운영을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학년말 1~2월에 집중적으로 유초연계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활동내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 견학, 교육행사 공동시행, 교실환경 구성, 화장실 이용, 알림장 및 그림일기나 독서록 작성 등 학습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2009 개정 초등교육과정부터 1학년 학생들의 입학초기 적응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초기 적응프로그램 시간은 ‘우리들은 1학년’처럼 80시간으로 고정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영역의 첫 주제인 (1) 적응활동·입학, 전학 등에 따른 학교 적응 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기초에 운영하며 교육지원청에서 탑재한 자료나 학교 재량으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초연계교육활동이나 적응활동프로그램은 대부분 내용이나 활동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및 교사 그리고 지역에 따라 실제적으로 내용과 운영상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적응활동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초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입학초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

통된 상호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은 유아의 초등학교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과거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는 달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아직도 유아교육기관을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초등학교를 위한 준비교육기관으로만 인식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으로 간혹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유·초 연계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대상의 체계적인 연계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 이해, 발달적 측면에서의 유·초 연계교육의 필요성, 유치원과 초등교육 교육방침에 대한 내용 등으로 한 부모용 소책자를 개발하거나 가정통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유초연계교육의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발표자도 밝힌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활동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연계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기관 협력교류 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할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공동연수와 공동협의회를 통한 자율 연수를 활성화하여 상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이해 및 유초연계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유초연계교육 연구회의 조직 및 수업컨설팅단을 활성화하여, 유·초 연계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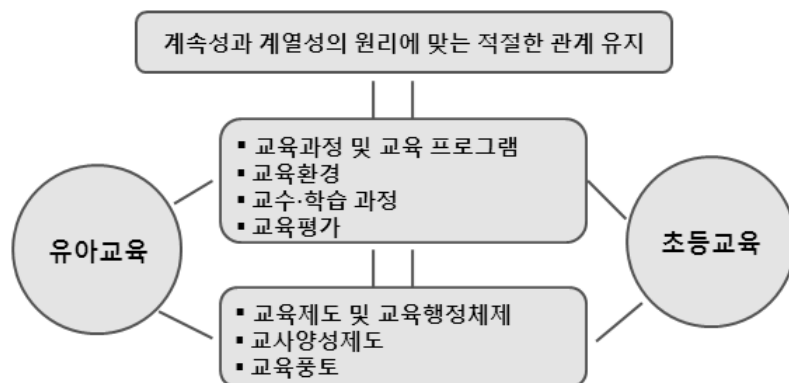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유·초 연계교육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사, 부모, 기관 및 행정부처 등 여러 주체들의 연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유아의 적응 문제를 최소화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한 소고

유홍옥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장)

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3-5세 누리과정의 실행을 통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수반되면서 초등교육과의 연계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첫째, 유아기 교육이 이후에 미칠 영향이 장기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둘째,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이 ‘학교(schooling)’로 인정되어 공적자금의 수혜 대상이 되었으며 셋째, 공교육으로 변모한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등이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이교육화(educationalization), 체계화(systematization)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유아교육을 초등교육과 형식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유·초연계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윤은주, 2010).

2. 연계성이란, 어린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수-학습 과정, 교육평가,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체제, 교사양성제도, 교육풍토 등에 있어서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곽노의·김창복·이경순, 2012; 박찬옥·박창현, 2010).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

3.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성에 대한 필요성을 발달적 적합성, 교육과정의 효율성, 초등학교 적응의 적합성 측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적응의 적합성은 앞서 장혜진 연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 한 누리과정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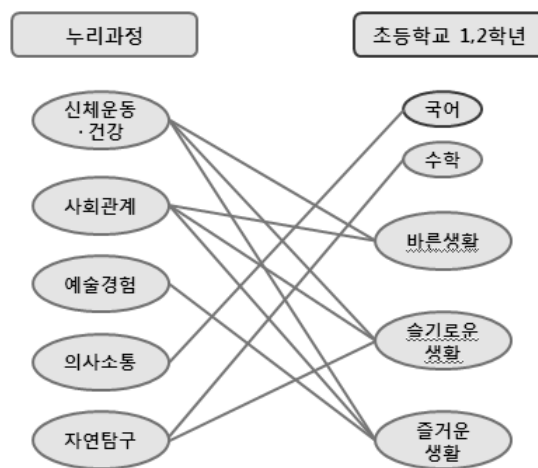
4. 이와 같이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유·초 연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적용·실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노의·김창복·이경순(2012)이 제안한 유·초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몇몇 유아교육기관 교사 면담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측면

1) 누리과정부터 초·중학교 교육과정까지 국민 공통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연계를 이루려면 먼저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변화되어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실행하고 있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을 현재 별도 편성·운영하는 누리과정까지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 누리과정 영역과 초등학교 교과 명칭 통일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교육 관계〉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초등학교 5개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 교과 간 명칭이 달라 두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3) 초등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자료 보급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활동별 ‘초등교육과정 관련요소’를 제시한 점은 유·초 연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나 이와 관련된 자료나 교사 연수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누리과정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연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찾아 기록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신이 안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찾은 자료에서 선정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확인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전적으로 교사에게만 맡긴다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사 면담 1)

기록할 때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기록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써야 되니까...참고자료는 없고...그냥 교사용 지침서에서 대강 비슷한 거 찾아서 쓸 때가 많아요. 지침서에 맞는 거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교사 면담 2)

4) 초등교육과정과 초등교사용 지도서에 누리과정 관련 요소 명시

초등교육과정과 초등교사용 지도서에도 누리과정과 관련된 요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연계교육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침서’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체제 및 행정적인 측면

- ① 유아교육의 기본학제 및 공교육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과 연구가 수반 되어야 한다.
- ② 유아교육의 중복 행정체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단일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단계 간의 연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가 기본학제 속에서 독립된 교육체제로 동등한 힘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 ③ 유아교사 양성체제를 초·중등 교사양성기관과 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사는 초등교사 특히 저학년 교사와 동일한 교사양성체제를 통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
- ④ 유·초 연계용 전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추후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의 전이를 돕는다.

그 밖에 연계교육 컨설팅을 담당하는 ‘수업개선지원단’ 조직 및 활성화, 초등학교 저학년 전담 교사제 실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담임 임명 시기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 교육의 실제적 측면

1) 자기 및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수 및 자료의 보급

유·초 연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본 것이 다예요. 유·초 연계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교수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초간 교육과정 연계인지, 기관 간의 연계인지,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어린이의 직접 공동 체험활동인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유·초 연계를 하라는 지시만 있고 구체적인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초 연계 연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 면담 3)

2) 아동 발달특성과 수준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의 전개와 교육환경의 구성

유치원에서 유아의 발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지도해야 초등학교에 가서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도하는데 막연해요. 예를 들자면,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인데...누리과정에는 직접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기를 가르치기에 대한 지도내용이 없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들으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받아쓰기부터 시작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지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제 지도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자연스런 놀이 과정에서 글에 대한 관심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지만 막상 아이가 글자를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유치원의 교육방침이나 저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때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발달이 조금 지연된 유아인 경우 초등학교에 가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되지만 초등학교에 유아의 발달 정보나 특성에 대해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점도 아쉬운 점이에요. (교사 면담 4)

3) 그 외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촉진시켜주는 여러 가지 활동의 실행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촉진시켜주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의형제 맺기, 유·초 교사협의회 구성을 통한 연계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유·초 교사의 상호수업참관, 운동회, 예술제, 현장학습 등의 행사에 공동 참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유아교육기관 5세 유아와 1학년 아동이 함께 공부하는 1일 Open Day 운영,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초청 이야기 나누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보다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 다니는 친구는 부분적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게 연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도하기 어려워요.

(교사 면담 5)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보다 유치연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나 봐요. 초등학교 견학과 관련하여 문의를 할 때면 일정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아요. 현장체험학습에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5세 유아의 협동 활동을 계획하고 문의를 했을 때도 버스대여 문제, 시간문제, 유치연계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결국 못했어요.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양쪽이 똑같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교사 면담 6)

라. 교사와 학부모 인식의 측면

연계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계교육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교사의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윤혜정·김소향(2013), 김창복·최창현(2002), 김창복(200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누리과정 혹은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유치원 교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유·초 연계 관련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을 알고 싶어 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사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진부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이제는 시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초 연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을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초등학교를 위한 준비기

관으로만 간주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초등학교는 유아교육기관과 긴밀히 연계된 학교기관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연계 토론

박지현 (구립면일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교과서 중 즐거운 생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학교’, ‘봄’ 등 주제별 통합교과로 바뀌면서 누리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학교가기 전 준비과정을 갖고, 관련된 활동들(알림장쓰기, 그림일기 쓰기, 받아쓰기, 줄넘기, 실내화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미리 경험해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다른 것보다 또래관계에 대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아 다른 것보다도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와 나눔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고, 현장에서 많이 알려주어야 하는 과제인 듯 합니다.

정책방안

1)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가) 단기 정책 방안

(1) 또래관계를 지원하는 연수 및 프로그램 필요

‘또래관계’는 단기간 내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인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적용하는데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인성’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주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동화 등 다양한 매체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면일어린이집에서는 인성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천하려고 매년 교사연수를 통하여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장님의 철학아래 ‘인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1년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매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4~5주간의 주제활동, 프로젝트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편견 동화를 통해 장애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나온 ‘인성 프로그램’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주제나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2) 지속적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놀이방법, 놀이의 중요성,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부모교육을 어린이 집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참석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초등학교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 한글이나 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공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사가 ‘인성’을 강조하고 부모님들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알려드려도 잘 받아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취약 계층 유아 및 부모 대상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도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아와 부모에게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방법이나 정보를 교사에게도 전달해주었으면 합니다.

나) 중기 정책 방안

(1)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교육연수와 교사의 수준이 모두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4년제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할 수 있고, 2년제 대학은 단기간내에 많은 것을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기본기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외부연수를 통해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자체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기본기를 탄탄히하고 선진교육들도 받아들여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사는 더 개발되어지고,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교사의 재교육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교사로 배치가 되었을 때 교사의 수준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을 듯 합니다.

(2) 연령별 학급 제안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단일학급의 경우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2)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연계를 위한 지원

가) 단기 정책 방안

(1)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계활동 실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다양한 연계활동을 하는 것은 유아들의 적응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보육 프로그램에서 2월에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지만 2월은 학교에서도 새로운 반으로의 진급과 졸업 등 많은 행사로 인하여 개방하기 어려우며, 아이들도 1월에 학교가 결정됨으로 1월에 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면일어린이집 7세반에서는 1월이 되면 ‘초등학교 간다네’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주변의 초등학교 견학(학교와 교실 둘러보기)과 알림장쓰기, 받아쓰기, 졸업기대회 등 다양한 것들을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어린이집에 초등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올해 입학한 1학년 형님이 7살반 교실에 초대되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여 듣고,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재미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견학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원장님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역할을 해주시며 개방을 할 수 있는 연계방도를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가정과의 연계 강조

부모님들은 ‘한글과 수’를 알지 못하면 적응을 못하고, 뒤쳐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면일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나 학부모 참여놀이 등 시간을 활용하여 또래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치해두고 부모님들께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초등학교에 관한 통신을 드리기는 하지만 누리과정 지침서처럼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이 나오거나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때 등 초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과정과 연계되어 아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부모님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누리과정 활동 내에서의 초등연계 강화

누리과정 운영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초등학교를 찾아가보는 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개방을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여러 차례 7세반 담임으로 아이들의 초등학교 진학 상담도 많이 해보았지만 ‘또래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도 부모님들은 공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면일어린이집에서는 만3~5세의 ‘또래관계’ 형성에 대한 과정을 아이들의 상황별 사진을 통해 알려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만3세의 경우 선생님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함께 놀이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만4세의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상황속에서 교사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해보는 경험을 하여 친구들과 ‘함께’ 라는 것을 배워가며 만5세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속에 문제 해결해볼 수 있는 선생님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워나가고 있음)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되는 부분들을 교육과 통신을 통해 알려드리면서 점차 기관을 더 신뢰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잘 적응하네요. 친구들과 함께가서 좋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씀해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어린이집 출신의 아이들을 2~3명 함께 반에 배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어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들이 잘 연계되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과정 연계 :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مامم정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12년 3월 정부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의 일환으로 이원화되었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하여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3-4세 누리과정 제정 및 5세 누리과정 개정을 통하여 2013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미 2009년 초등학교는 1, 2학년 군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누리과정은 제정 초기부터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3-5세 누리과정의 도입은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유아의 초등학교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교로서의 역할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초등학교 1학년 초 적응상태를 중심으로 누리과정 연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제인 『누리과정 연계 :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을 중심으로』는 누리과정 적용 대상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기 초 적응상태를 개인 및 가정환경, 누리과정 이용기관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련변인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내용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초등연계를 위한 누리과정의 적용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유아에게 초등학교에서의 출발점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 비추어 누리과정의 적용을 전체 유아에게 적용할 사회적 책무에 대한 필요성 언급과 그에 연계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구방법이나 관련 변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 제언 내용에 근거하여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 어린이집의 입장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첨부하고자 한다.

1.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연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에 대한 입장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또래관계 영역은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도 지적하였듯이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에 또래에 대한 관계성이 개인의 사회성 발달이나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누리과정의 적용에서 많은 현장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연구 제안에서 밝힌바와 같이 누리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부모교육 및 가정연계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적 견해를 덧붙이고 싶다. ‘누리과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원래의 가치를 반드시 교사 및 부모들에게 안내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인간은 출생 후 여러 가지 발달 속에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인성 역시 한 개인이 본연적으로 가진 내재적 가치이며 부모와 교사는 그것을 발현시켜줄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를 안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 사적 기관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활동 프로그램처럼 별도로 구분하여 실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래 누리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적용이란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일과 중 관련 주제와의 통합적 활동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한다는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으로 상당수의 교사들이 하루일과 속에 인성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인성교육이 의미하는 가치를 강조하여 인성교육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처럼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사항으로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기관에서도 인성교육이 특별활동처럼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에서 연령별로 지향하는 인성적 가치를 주제와 연관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여 무분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누리과정 시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에 대한 입장(어린이집 중심으로)

첫째,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질 관리 대책 필요성

현재 누리과정 수업 준비 및 평가 등 업무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년도별 보육사업안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소지를 한 자로 담당 업무는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타 근로조건은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0만원(4시간 기준) 이상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누리과정 보조교사에 대한 자격 및 운영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질관리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연수관리체계가 있으나 이들 보조교사에 대한 질관리 체계는 없다.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이 일과 중 누리과정을 적용한 다양한 통합활동을 할 때 업무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누리과정체계나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대한 공식적 안내체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보조교사에 대한 누리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 체계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일괄적으로 준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예산 등의 문제로 힘들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자료를 공유하여 어린이집에서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명칭을 ‘누리과정 지원교사’라고 개칭할 것을 요구한다. 보조라는 단어가 주는 범위의 한정으로 인해 역할 역시 보조의 범위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이들 상당수가 시간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질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지원교사로 개칭하여 이들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시간제 근무가 아닌 정교사 근무지침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누리과정 지원비의 효율적인 집행과정 대책 필요성

현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어린이집 시설회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첨부된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과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참조하여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를 수립하여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지원비가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에 관련 과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의 관련 목에 누리과정 관련 내용 근거를 각각 수립하여 결산 역시 각각 집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다양한 질관리 정책 내용 중 영유아

보육을 중일 실행해야한다는 입장에 비추어 가능하면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요구해왔다. 실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지원금을 내역별로 각각 분할하여 수립하고 결산을 집행하여 누리과정 지원금과 다시 일치를 시키는 등의 번거로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관리를 지도점검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누리과정지원 예산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 세입예산과목 보조금 수입 중 경상보조금 수입에 누리과정지원금을 새로운 목으로 신설하고 세출예산과목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누리과정운영비 항을 신설하여 그 속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을 목으로 구분하여 누리과정지원금을 그 속에서 일과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게 하면 현재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교가 된다는 질적 가치를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유아들의 누리과정 이용을 통한 균등한 질적 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와 여러 관련기관의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